

나와 키요사토(清里)

『노당당(露堂堂)하게 살던 사람 · 아사카와 타쿠미(浅川巧)』

강연자 : 하정웅

강연일 : 2024년 7월 20일

장소 : 야마나시현(山梨県) 호쿠토시(北杜市) 아사카와 형제 자료관

-강연 내용

1. 고향은 고마운 곳
2. 노당당하게 빛나다
3. 백자의 사람
4. 아베 요시시게(安部能成)의 “청구잡기(靑丘雜記)“에 대하여
5. 와츠지 테츠로(和辻哲郎)의 “청구잡기“를 읽는다
6. 인간의 가치
7. 키요사토 은하학원 개원에 즈음하여
8. 무엇을 배울 것인가
9. 아사카와 노리타카(伯教) · 타쿠미 형제 기념공원의 비석 건립

-고향은 고마운 곳-

내가 살아온 일본생활 85년 동안에 중일전쟁, 제 2차 세계대전, 종전에 의한 조선의 해방, 그리고 한반도에서 일어난 남북전쟁 즉 한국전쟁, 오일쇼크, 버블경제의 붕괴, 한신(阪神)아와지(淡路)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군사침공, 그리고 노토(能登)반도 지진 등 설 틈 없는 사회적인 변란과 자연재해들이 있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라고, 평상심을 유지하며 이들 사건들을 거치면서도 살아 올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다.

나를 키워주고 피와 살을 만든 고향은 출생지인 후세(布施)모리가와치(森河内, 현재의 히가시오사카시(東大阪市))에서 태어난 뒤에 이주한 아키타현(秋田縣)오보나이(生保内, 현재의 센보쿠시(仙北市))이다. 2살부터 4살까지 잠시 살았던 부모님 고향은 한국 전남 영암이다. 아키타공업고등학교 졸업 후에 사이타마현(埼玉縣)가와구치시(川口市)를 고향으로 삼아 65년이 된다.

또 하나 소중한 고향이 따로 있다. 21세 때 무작정 내렸던 아사카와 타쿠미(淺川巧, 1891년생~1931년 사망, 향년 40세)의 고향인 키요사토(清里, 야마나시현(山梨縣)호쿠토시(北杜市))이다.

나는 아키타공업고등학교 3학년때(1958년) 아키타현립도서관에서 아베 요시시게(安部能成, 1883~1966)가 쓴 '청구잡기(靑丘雜記)'를 읽었다. 거기에는 아사카와 타쿠미를 '노당당(露堂堂,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모습. 선어(禪語))' 하게 살던 사람이라고 써 있었다. 아사카와 타쿠미와의 만남이다. 그리고 그 후 키요사토 생활의 터전이 되었다.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조선에 살면서 조선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았던 드문 일본인이다. 타쿠미의 생애는 '인간의 가치'가 실로 인간에 있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그 삶으로 보여준 국제인이었다.

재일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철학을 가르쳐 준 것이 아사카와 타쿠미의 삶 방식이다. 그것은 '인간의 가치'라는 하나의 문장에서 비롯되었다. 아사카와 타쿠미의 업적은 많지만, 나의 감명은 그의 삶의 모습, 사고방식, 일상의 행동과 영위이다.

아사카와 타쿠미는 한국의 산천과 역사와 문화를 크고 깊은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어 '공생'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나의 재일 생활이 85년이 된다. 그 사이에 시대는 물질문명만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격차사회로 되었다. 사람들의 마음의 병은 깊이 황폐하여 한탄스럽다. 우리는 불행했던 한일의 시대를 극복하여 21세기에 다시 살아나 성심성의껏 우호친선을 키워 형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아사카와 타쿠미는 말해 주고 있다.

나는 제일의 삶을 타쿠미처럼 '노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원했다. 타쿠미의 고향인 키요사토에 집까지 짓고 살아온 60년, 고향이란 고마운 곳이다.

-노당당하게 빛나다

1997년 11월 27일, 서울에서 아사카와 타쿠미의 서거 64주년을 기념하는 한일합동 추모제가 처음으로 열렸다. 세상 간의 평가에서 초연했던 아사카와 타쿠미에 조명되었다.

2016년 전후 70년을 기념해 <조선일보>와 국립한국 역사박물관이 선정한 '한국을 빛낸 세계의 70명'에 한반도 녹화와 백자의 가치 창출에 힘쓴 아사카와 타쿠미가 선정되었던 것이다.

한국인들이 아사카와 타쿠미처럼 친근감을 느끼는 일본인은 없다. 한국인들이 감사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있는 빛이었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흙에 몸을 담아 어두운 밤에도 몸의 빛을 내면서 주위를 밝게 해 주는 사람』이라고 저술하고 있다.

“식민지 시대에 일본의 조선 지배의 공범자라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본인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모순을 내포한 삶 속에서 반짝 빛나는 것의 정체를 파악할 것이 중요하다.” 고오후시(甲府市)에 거주하는 빗추(備中)씨의 논평이다.

“일본인의 조선관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상가 중 속의 한 명으로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가 있다. 그의 '탈아입구론'에서 나오는 조선론은 서구적 근대화에서 뒤쳐진 조선은 멸시해야 하고,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후쿠자와의 조선론은 형태를 바꾸어 지금도 많은 일본인을 사로잡고 있다.

아사카와 타쿠미가 중요한 것은 그가 서양과 조선을 비교해서, 서양이 앞서고 조선이 뒤떨어졌다는 식으로 문제를 세우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사카와 타쿠미처럼 조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다카사키 소오지(高崎宗司)는 '아사카와 타쿠미 전집'에 저술하고 있다.

2023년은 관동대지진 100주년을 기념하는 수많은 행사가 한일 양국에서 열렸다. 정보와 언론이 통제되고 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사카와 타쿠미는 '조선인의 방화 같은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도대체 일본인은 조선인에 대한 이해가 너무 빈약하다. 그렇게 조선인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 일본인도 상당히 마음이 나쁘다. 아주 저주받은 인간이다. 그들 앞에서 나는 조선인을 변호하기 위해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관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술한 의리의 사람이기도 했다.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경멸하는 풍조가 강했던 시대에 아사카와 타쿠미는 이와 무관한 곳에서 조선의 민족과 문화를 이해하려고 했다. 그동안 한일 관계가 순조롭지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타쿠미의 삶의 방식을

배울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사카와 타쿠미는 거시적으로 인간, 조선인을 바라본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성해서 선한 마음, 넓은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미래의 후손을 위해, 세계를 위하여 기여할 세계인이 되어야 한다.

“지식의 궁극은 진리를 볼 것이다. 정(情)의 표현은 미(美)여야 한다. 의지의 이상은 선(善)이어야 한다. 자신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죽어야 한다.” 라는 이토 히데오(伊藤日出男)의 인생 교훈을 배우고 싶다.

## -백자의 사람

서울시가 관리하는 경기도 구리시 망우리공원 시민묘지에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비운의 화가 대향(大鄕)이중섭(1916년생~1956년 서거, 향년 40세)이 잠들고 있다. 이중섭은 한국 미술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현대 서양 화가이다.

묘지에는 장덕수, 한용운, 문일평, 오세창 등 독립 한국 근현대사를 빛낸 저명 인사들의 묘가 있다. 그 인근에 한국인의 사랑을 받고 보호받고 있는 일본인 아사카와 타쿠미의 묘가 있다.

아사카와 타쿠미는 야마나시현 호쿠토시 다카네초(高根町)에서 태어났다. 야마나시현립 농림학교 졸업 후, 4년이상 아키타현 오오다테(大館)영림서에서 농림기사로 근무하다가 형 노리타카와 함께 조선에 건너갔다.

농림기사로서 식림녹화 보급에 힘쓰는 한편, 잊혀져 가는 조선의 미를 발굴할 일에 기여했다. 식민지였던 조선에 살면서 사랑받은 드문 일본인으로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아사카와 타쿠미의 고향인 야마나시현 호쿠토시에서도 그의 존재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나는 1958년 아키타의 고등학교 시절 아사카와 타쿠미를 알게 됨으로써 재일교포로서 살아가기 위한 인생 철학을 배웠던 존경하는 일본인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사천을 갖고 싶어 하지만, 조선인과 마주한 아사카와 타쿠미는 사천 따위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자신의 뿌리가 고구려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 같아 아사카와 타쿠미는 “고구려인의 피가 나를 고향 조선으로 부르고 있다”고 고백한 것부터도 조선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엿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식민지화의 어려운 시기에 양국의 고향에서 받았던 고초를 자신의 생애에 대신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 살아온 시대와 평생은 다르지만 디아스포라인 재일동포 2세인 나로서는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는 세계인이라고 느꼈다.

아사카와 타쿠미의 명저 『조선 도자기 명고(名考)』(1931년간)의 말미에 적힌 “민중이 각성하여 스스로 낳고 스스로 키우는 곳에 모든 행복이 있다고 믿는다”는 문장은 그 사랑의 증거이다.

“앞으로 조선 도자기의 연구는 조선 연구의 발달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더욱이 그 어떤 연구자도 앞으로 반드시 한번은 이 책의 문턱을 넘지 않을 수 없겠다고 생각한다. 조선의 학도들이 고국의 문화에 대해 눈 뜰 때, 이 책은 아마도 합병 이후 일본인이 한 일들 중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일 것이다.” 아베 요시시게는 이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조선송의 노천 이장법에 의한 종자의 발아, 양묘 개발 등 그 업적은 빛다. 조선민족미술관의 건립 추진, 조선 도자기와 공예 연구, 조선의 선(膳)

등 공예미를 고찰하고 수집하여 저서를 남겼다. 한민족의 미의식과 혼을 민예와 식립의 영역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었다.

일본민예관의 설립자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 1889년생~1961년 서거)는 「조선도자기명고」 서문에 “어떤 저서든 어느 정도 선인의 저서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저서만큼 스스로 기획하고 성취한 것은 드물다”고 적고 있다.

야나기는 “조선인은 일본인을 미워하더라도 아사카와 타쿠미는 사랑했다”는 글을 저술하여 말년에 불교에서 말하는 '묘묘인(妙好人)'의 언행이고 남기고 있다.

또한 '아사카와 타쿠미를 추모한다'는 글에서 “아사카와가 죽었다.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다. 저렇게 조선을 내부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나는 따로 알지 못한다. 정말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인을 사랑했다. 그렇게 진정으로 조선인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던 것이다. 그의 죽음이 전해졌을 때, 조선인들이 바친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 그의 관은 기꺼이 신청한 사람들에게 의해 운반되어 조선의 공동묘지에 매장되었다.

나와는 오랜 교우 관계였다. 그가 없었다면 조선에 대한 나의 작업은 절반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민족미술관은 그의 노력에 의지할 것이 크다. 그곳에 소장된 많은 물건들은 그의 수집에 의한 것이다.

좀 더 살아 주었으면 훌륭한 일을 많이 이룩했었을 것이다. 그 처럼 조선의 공예 전반에 걸쳐 실무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우리가 함께 계획한 일도 많았다. 절반으로 그와 이별한 것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그가 없는 조선은 갈 곳 없는 조선과 같이 느껴진다.”고 아쉬워하고 있다.

“야나기들의 민예운동은 조선의 일상 잡기에 의해 찢어진 눈을 일본으로 돌린 데서 태어났다. 일본 민예운동 탄생의 계기가 된 인연을 맺어준 사람이 야나기의 친구인 아사카와 노리타카, 타쿠미 형제가 있었다”고 철학자인 츠루미 슌스케(鶴見俊輔)가 말하고 있다.

야마나시현 호쿠토시 출신의 에미야 다카유키(江宮隆之)의 저서 '백자의 사람'(1994년 출간)이 영화로 되어 2011년 완성해서 화제가 된 지 십여 년이 지났다.

제작 과정 중에 양국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아사카와 타쿠미의 탄생 120년, 서거 80주년이 되는 2011년에 완성 상영되었던 것이다.

최근까지 한일 양국의 젊은이들과 아사카와 타쿠미가 근무했던 서울 임업연구원 직원들조차 관심이 적어 잘 알려지지 않은 존재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영화 상영을 통해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산과 민예를 사랑하고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았던 일본인 아사카와 타쿠미의 시대를 되돌아보고, 아사카와 형제의 업적을 검증해서 서로 배우며, 미래에

복음을 전하는 열매를 수확해야 한다. 성찰을 담으면서 나는 기대를 걸고 있다.

-아베 요시시게(安部能成)의 “청구잡기“에 대하여

“청구잡기“는 1932년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에서 출간되었다. 수록된 수필은 29편에 이르며, 추도문인 '아사카와 타쿠미 를 추모한다'라고 공적을 소개한 '아사카와군의 조선도자기 명고' 2편은 감동과 감탄으로 말로 표현 못하는 글이다.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 훌륭한 우정의 아름다움과 영혼의 진실을 읽을 수 있다.

묘비에 '선진미진(善盡美盡)'이라고 새겨져 있다. 그 인연은 “청구잡기“와의 만남에 의한 것이다. 생전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사카와 타쿠미의 정신을 동경하여 경애한 인생의 뒷처리이다.

아베 요시시게는 자연주의 학파의 철학자이며 칸트 철학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 신제 학습원(學習院)의 원장이 되어 사망할 때까지 재임했으며, 현 일왕 아버지의 청년 시절에도 강의했다.

구제 제1고등학교 재학중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하타노 세이이치(波多野精一), 다카하마 료시(高浜虚子) 등 문호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와나미서점을 일으킨 동기의 이와나미 시게오(岩波茂雄)와의 교류는 평생 이어져 이와나미의 『철학총서』를 편집, 전후에는 평화운동에 참여했으며, 이와나미 서점의 『세계』 창간기 대표를 맡아 관여했다.

1942년부터 1926년에 걸친 유럽 유학에서 귀국 후 경성제국대학 교수가 되었다. 조선의 문화를 상세히 검토하고 일본인의 조선인 경멸 감정을 타일러, 전쟁 전의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 전쟁 후의 사회주의에 대한 과대 평가에 비판적이었다. 전쟁전 전쟁후를 통해 일관된 리버럴리스트-자유주의자였다.

온고지신(溫故知新), 옛날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찾아 “청구잡기“ 서문의 요지를 소개한다.

이 책은 1926년 2월 내가 유럽 견학에서 돌아 와 조선에 부임한 이래 약 6년에 걸쳐 그때그때의 심정에 따라 느낀 잡문을 수록한 것이다.

“청구잡기“의 이름은 이 책에 수록된 모든 글이 조선어로 쓰여진 데 비롯되었으며, 청옥은 조선의 아호이자 동쪽의 나라를 뜻하는 말이다.

조선에 건너온 것은 내 일생에서 상당히 큰 변동이지만, 나는 대체로 모든 땅에 애착을 느끼지 않고 대부분의 땅에 아름다움과 호감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인 위에, 경성에는 도쿄이후 오랜만에 알게 된 옛 지식도 있고 처음 알게 된 새로운 지식도 있어, 나의 사생활에는 나 자신에 대한 것 외에는 거의 불만이 없었다.

조선의 자연도 조선의 문화도 그 자체로서는 뛰어나지 않지만, 나는 어떤 자연에도 보편적 혹은 특수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조선의

문화는 특히 일본 문화와의 관련에서 나의 흥미를 끄는 경우가 많다. 다만 현재 내지인들과 조선인 사이에는 너무나 딱딱한 몇몇 문제들로 가득 차 있고, 그에 깊이 파고 들어 갈 것은 즐거움보다 오히려 고통이 더 많다.

내가 조선에 온 후 큰 슬픔은 지난 봄에 아사카와 타쿠미 군을 먼저 여윈 것이다. 나의 이 책으로 인해 내가 보기에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 내지인들의 관심을 조선에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은 뜻밖의 행운이다.

-와즈지 테츠로(和辻哲郎)의 “청구잡기“를 읽는다.

일본적인 사상과 서양 철학의 융합, 어떤 것을 그 자체로는 부정하면서 더 높은 단계에서 살리는 것을 목표로 했던 와즈지 테츠로(1889~1960)가 1933년 제국대학 신문에 1932년 간행된 아베 요시시게의 “청구잡기“를 읽는다는 글을 실고 있다.

와즈지는 윤리학자, 문화역사가, 사상사자, '고도순례', '풍토' 등의 저술로 유명한 일본의 보기 드문 철학자이다.

다음은 와즈지 씨의 “청구잡기를 읽다“의 요지이다.

“청구잡기“는 조선, 만주, 중국의 풍물기와 몇몇 고인의 회고록 및 친구에 대한 소식으로 이루어진 수필집이다.

저자는 이 책의 서문에서 '유유한 관념 세계'를 갖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람들이 유유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다툼에 놀라지 않는 불멸의 강함을 가지기 때문이다. 저자는 중국 거지의 뻔뻔함 속에도 그와 비슷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산습득(寒山拾得)은 그 상징이다.

저자는 조선의 풍물을 이야기할 때, 자기를 무시해서 풍물 자체의 진한 맛을 드러낸다. 게다가 이 풍물들은 철저히 저자의 인격에 스며들어 있다.

자기는 무시하면서 동시에 대상으로 자신을 드러나게 된다. 여기에 저자의 풍물기의 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혼자 여행하는 마음을 설파하는 것도, 자아에 집착함으로써 나로부터 탈피하여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였다.

탈아의 입장에서 이국의 풍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경이로운 관찰을 접하게 된다. 인간을 둘러싼 식물, 집, 도구, 의복 등의 세세한 형태가 깊은 삶의 표현으로서 거대한 의미를 갑자기 우리에게 보여준다.

풍물기는 그대로 인간성의 표현에 대한 해석이 되고 있다.

저자가 고인이 된 아사카와 타쿠미 씨를 이야기하면서 보여준 비할 데 없는 우정의 표현 또한 마찬가지로 탈자아의 입장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사카와 타쿠미를 애도하는 한 문장이지만, 저자는 여기에 경탄할 만한 한 위인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려내고 있다.

그려진 것은 어디까지나 이 존경할 만한 산림기술자이지 저자 자신이 아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한 문장에서 저자 자신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유자적인 관념의 세계는 부정의 부정의 입장으로 우리를 타자와의 경계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그 본원의 경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 '인간의 가치' —

아베 요시시게는 그의 저서 '청구잡기'에 '아사카와 타쿠미를 추도하다'를 썼지만, 이것이 1934년 중등학교 교과서 '국어 6' 그리고 근역초(權域抄, 1947년)에 '인간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타쿠미씨처럼 올바르게 의무를 중요시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신만을 두려워하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관직이나 학력이나 권세나 부귀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그 인간만의 힘으로 노당당하게 살아 내었다. 그러한 사람은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다. 인간의 생활을 든든하게 한다. 인류에게 있어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바르고 용감하게 밟았던 사람의 손실만큼 커다란 손실은 없다.” 아베 요시시게가 여기까지 말하게 된 아사카와 타쿠미는 내 마음속에 보편적 가치로 살아왔다.

“나는 신에게 돈을 모으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했다고 한다. 한 종류의 종교적 안도감을 얻고 자기 자신을 위해, 다른 목적을 위해, 보상을 위해 할 것을 극도로 혐오했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순결에서 비롯된 것일 것 같다.”

약자를 외면할 수 없는 청빈(淸貧)한 사람, 오른손으로 행한 선행을 왼손으로 알리지 않는 행위는 항상 조선사람들의 마음에 녹아들려는 그의 인품이 만들어낸 것이다.

“나쁜 자, 무능한 자, 게으른 자, 비열한 자들의 대부분은 훨씬 높은 봉급을 받아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으나, 타쿠미씨와 같은 사람은 적은 봉급이나 비천한 관직이라도 그 사람에 의하여 그 직분을 귀하게 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타쿠미씨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인간적인 힘의 존중함과 강인함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인간의 가치가 상품화되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인가. 나는 타쿠미씨를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오히려 이 일을 기뻐하고 싶다.”

“타쿠미씨의 일이 씨앗을 뿌려 조선의 산을 푸르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면, 한 알의 씨앗을 뿌려 한 그루의 나무를 키워내는 일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가. 타쿠미씨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었다.” “조선인의 생활과 친하게 하고 문화를 연구하여, 1923년부터 야나기 무네요시씨와 노리타카씨와 협력하여 조선민예미술관을 설립한 타쿠미씨의 태도는 참으로 자기 생각이 없었다. 내지인이 조선인을 사랑할 것은 내지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한층 어려운 일이다. 감상적인 인도주의자도 추상적인 자유주의자도 이 현실 문제 앞에서는 금방 낙제해 버린다.”

“타쿠미의 생애는 칸트의 말처럼 인간의 가치는 실로 인간에게 있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실증했다. 나는 진심으로 인간 아사카와 타쿠미 앞에 고개를 숙인다.”

나는 사람을 아끼는 글에서 이보다 더 통절하게 진심을 털어 낸 우정의 말을 모른다. 이 문장이 왜 전쟁후에는 교과서에서 사라졌는지. 정치나 경제가 변하면 '인간의 가치' 그 자체까지 변한다는 말인가.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인간이 변하고, 세상의 편의에 따라 변했을 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떨까.

나는 오늘까지 아사카와 형제에 대한 존경과 흠모,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재일 생활을 해 왔다. 나는 어떤 시대에도 '인간의 가치'는 변하지 않다고 믿는다.

—키요사토 은하(銀河)학원시작을 축하하여—

한국과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유일하게 소개되고 있는 일본인 아사카와 타쿠미. 그러나 양국 국민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는 인물이다. 한국에서는 업적에 비해 아직 인지도가 낮아 아쉽다.

그러나 아사카와 형제의 삶을 통해 배우면 온고지신, 한일 양국이 함께 배워야 할 오늘을 사는 보편적인 가르침이 있다.

1991년 야마나시현 호쿠토시에 아사카와 노리타카—타쿠미 형제 자료관이 건립되었다. 그 전 해에 구 다카네초부터 작품과 자료의 기증 요청이 있었다.

내 소장품이었던 인간 국보인 유해강(柳海剛)과 지순탁(池順鐸)의 청자, 백자 등을 포함한 한국 민예품 등 67 점을 기증했다.

그때 기증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사업에 활용해 주면 좋겠다. 자료관은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연구기관이어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선구자를 길러낸 야마나시의 풍토와 역사, 문화를 배우는 '아사카와학(學)'의 학술연구기관이 되어 사회에 환원해 주기를 바란다.

시민교육, 특히 차세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일의 상호이해, 우호친선 교류를 촉진하고 국제친선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의 상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의 생생한 만남과 마음의 교류에 달려있다는 신념에서이다.

기증 후 내가 할 수 있는 일,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다가 도달한 것이 사립학원인 키요사토 학원 은하학원의 설립이었다.

1961년 처음으로 야쓰가타케(八ヶ岳) 산기슭의 키요사토에 내렸던 나는 그 웅장한 자연에 신비로움을 느껴 소름을 끼쳤다.

사립학교인 키요사토 은하학원의 개강 인사말은 항상 이 위대한 자연의 대기(大氣)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생각은 키요사토에 내렸을 때의 감동과 영감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호는 '동강(東江)'이다. 히말라야에 내린 눈과 비가 강물이 되어 흘러 큰 강이 된다. 그 시내가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 간다. 해류는 흘러가고, 그 흐름은 기류가 되어 하늘에서 정화된다. 유구하게 반복되는 자연의 섭리는 히말라야에 내려 와 순환한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식 때 기록집에 '대하처럼' 살다고 적었다. 우주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나의 철학을 표현한 것이다. 일본(동쪽)의 큰 강이 되겠다는 재일의 기개이다.

나는 부모님 고향인 영암 왕인 박사묘(왕인박사 유적지는 전남도 기념물 제 20 호)에 서서 서쪽으로 펼쳐진 하늘을 우러러 본다. 어느 때는 느긋하게 대륙에서 물려오는 구름의 움직임에 넋을 잃고 바라본다. 이 대기의 흐름 끝에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일본열도가 있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롭다. 또

벚꽃이 피는 계절에는 내가 살고 있는 가와구치시(川口市)에 있는 신사(神社) 안의 벚꽃이 왕인묘의 벚꽃길과 같은 시기에 피는 것을 보면, 벚꽃을 사랑하는 봄은 일본과 한국의 거리를 잇고 한마음 한뜻인 것을 실감한다.

또한 영암의 국립공원 월출산은 기(氣)의 산이라고 불린다. 히말라야의 기류가 고비사막, 한반도를 남하하여 월출산에 흘러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암 사람들은 그 기운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한다. 나에게도 그 기운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 자연스럽다. 키요사토에는 그 기운이 충만하고 있다.

— 무엇을 배울 것인가? —

20 대부터 키요사토 땅에서 여가를 보내게 되었다. 이 지역의 풍토 속에서 삶을 살았고, 곧 85 세가 된다. 이 땅에 내가 동경하고 존경하는 위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인간애를 가르치고 베풀어 준 선현들은 재일로 살아가는 나의 스승이자 삶의 지표였다. 한 인간으로서 진리의 길을 개척한 선현의 발자취는 일본 풍토에서 숨 쉬고 있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의 뿌리에 일본의 풍토와 한국의 풍토를 겹쳐서 보이는 것들이 재일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을 형성할 것은 '사람의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진실'이 자랑스럽고 구도적(求道的)이면서도 풍토, 사람도 그에 걸맞는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황폐하면 풍토와 사람도 타락하지 않을까. 야쓰가타케 산기슭, 키요사토의 지역 풍토 속에서 태어난 정신, 아사카와 형제의 삶의 방식에서 배울 것의 의의와 의미를 찾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키요사토 은하학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배우는 의미, 배우는 즐거움은 삶 그 자체이니 그 기본이 될 '평생학습'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일반인(주민)은 자신을 위해, 지역발전 공헌을 위해 공부해 가자. 직업인은 직업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공부해 가자. 평생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 세대를 넘어 몸과 마음을 키우기 위해 배우자.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을 닦아 평생 성장하고 싶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내가 되고 싶다. 그 배움의 본능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다.

배움이 성숙해짐으로써 진정한 나를 확인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찾게 된다.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거기서 상대를 인정하는 인간관계를 만들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이어진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성숙하고 똑똑한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서로 배우고, 서로 돕고, 함께 살면서 서로를 높여주는 자기 연수를 쌓아가자.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스스로 배우고 함께 배운다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며, 평생학습은 곧 자기교육이다. 배움을 즐기는 문화를 창조하고 싶다.

—아사카와 노리타카·타쿠미 형제 기념공원 비석 건립—

나는 2006 년부터 사학 키요사토 은하학원을 20 회 열었다. 지금까지 배운 수강생은 1000 명을 넘는다.

함께 배우고 좋은 기억을 되새기며 선인들의 덕을 추모하고 회고할 것은 상호이해가 깊어지고 국제친선의 밑거름이 된다.

한국에서는 한국인들이 무덤을 지켜주고 있으며, 생탄지인 야마나시현 호쿠토시에서도 현창받게 되었다. 양국에서 사랑받는 인물이면서도 고향에 현창비가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을 나는 오랫동안 아쉬워하고 있었다.

폴 러쉬 박사는 '키요사토의 아버지'로 불리며, 현창단도 세워져 존경받고 성단에도 모셔져 오래 된다.

나는 1997 년 아사카와 형제도 언젠가는 성단에 모셔질 인물이라고 1997 년 아사카와 형제를 추모하는 모임 총회에서 강연한 적이 있다. 그 이후 언젠가 바위에 새겨 동상을 만들고 호쿠토시에 현창비를 드리려고 20 여년 동안 구상을 가다듬어 왔다.

2021 년은 아사카와 타쿠미의 탄생 130 주년, 서거 90 주년이 되는 해로, 6 월 13 일 아사카와 노리타카·타쿠미 형제를 추모하는 모임 결성 25 주년을 기념하여 '경애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라는 문구를 새긴 '노당당'이라는 진문(陣文)을 달고 형제의 동상 조각 현창비를 생가터에 세우게 되었다.

비석의 디자인은 오층탑을 형상화한 5 층(5 단)이다. 비석은 우에노(上野) 공원의 왕인박사비를 본받아 하층 4 단은 흰 화강암을 연마하였다. 상층은 한국산 곡성석을 닦아 광택을 내고 조각가 하리야마 히로후미(張山裕史)씨가 제작한 아사카와 형제의 조각을 배치했다. 비문은 고후시의 서예가 사야마(狹山) 우에마츠 나가오(植松永雄)의 휘호에 의한 '노당당'이다.

아베 요시시게의 “청구잡기“ '아사카와 타쿠미씨를 추도하다'의 문장 속에 있는 '그 사람의 힘만으로 노당당하게 살아 내었다'에서 '노당당'이라는 글을 현창문으로 채택해서 새겼다. 2023 년에 호쿠토시는 경기도 포천군과의 자매도시 체결 20 주년을 기념하여 자료관 앞 광장을 정원으로 만들어, 제가 기증한 석재로 '아사카와 노리타카·타쿠미 형제 기념공원 기념비'를 건립했다.

명실함께 성단의 꿈이 정몽(正夢)이 되었다. 아사카와 형제 위덕의 은혜이다. 어제부터 오늘, 오늘부터 내일에 이어지는 고귀한 계속. “옛날에 심었던 묘목이 크게 자라난다. 오늘 심는 묘목은 미래의 대목”이 될 것이다. 한일 우호의 연대를 맺는 교류의 광장이 되기를 영원히 기원한다.